

## Pacific Polymer Federation Council Meeting에 대한 보고

지난 12월 4~7일 동안에 일본 Kobe에서 열린 Pacific Polymer Conference 기간 중에 Pacific Polymer Federation(PPF) Council Meeting이 5일 저녁에 열렸다. 여기에 제주도 ICC에서 2011년에 열릴 PPC-12에 대한 홍보 및 소개에 대한 발표를 위하여 PPF council member 중의 한분인 KAIST의 김성철 교수님과 함께 참가하였다. 각 나라에서 온 19명의 council member 중에 13명과 저를 포함한 몇 명의 observer가 참석하였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어 차기 PPC-11 개최 예정지인 호주의 Andrew Whittaker 교수가 개최지인 호주의 동북쪽에 위치한 Cairns시에 대한 소개와 함께, 2009년 12월 6~11에 열리는 것을 발표 하였고, 곧 이어 앞으로 2년간 PPF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차차기 PPC-12 개최지인 한국측의 council member인 김성철 교수님이 2년간 vice president로 선출되었다. 다음 순서로 우리나라 개최지인 제주도와 제주ICC에 대한 소개를 제가 발표하였으며, member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 순서로 2013년에 PPC-13의 개최를 희망하는 4개 나라(China, Canada, Taiwan, Malaysia)가 각각 자국 개최지의 장점을 홍보를 하며 유치희망을 표하여 치열한 경쟁을 보였으며, 차기 회의 시에 개최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미국측 council member가 일어나서, PPF 전통에 따라 PPC-14를 이미 정해져 있는 Honolulu의 Pacificchem 학회와 함께 2015년에 미국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못 박듯이 말하여 2015년의 개최 희망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회의가 마무리 되었으며, 기타 많은 사항을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이 상의를 통해 준비하여 차기 회의 상정하기로 하였다.

PPC-10에 대한 간략한 요약보고는 5개의 발표장을 이용하여 2개의 plenary 발표와 44개의 초청강연, 133개의 oral 발표와 390편의 poster 발표 등 총 569편 발표가 진행되었다. 초청강연 중에서는 박정기, 이광섭, 하창식, 김진곤 교수 등이 포함되었고, 참석자 수는 참가자 명부에 의하면 대략 일본내에서 530명, 27개의 참가국에서 170명 가량 등 총 700여명이 참가 하였다. 이중 한국에서 50여명이 참석하여, 참가외국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였다.

<성균관대학교 이두성>

